

봄이 오는 날에...

신 문 식

공증인 · 변호사

금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그러던 것이 입춘을 얼마 안두고 날이 풀리면서 제법 봄 기분 마저 든다.

곧 새싹이 나고 벚꽃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아뭇든 좋은 계절이 올 것이다.

옛날에는 가을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어 갈수록 봄이 좋다.

그리고 추운 것보다 더운 게 더 낫다.

계절에 따라 자연이 변하는걸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감사할 일이다.

공증인 업무를 하면서 시간이 조금 여유 있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문이 많았던 것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고 우주는 끝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등이었다.

사실 법학을 전공하지 아니 했으면 천체물리학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틈틈이 시간 있을 때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다.

물론 본인이 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맞을지 안 맞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간다는 것도 너무 되는 대로 사는 것 같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나, 사람이 죽으면 천당 지옥이 있어 그리 갈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대다수는 시간이 바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별 신통한 답변이 없다.

하긴 단정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우선 이 우주는 엄청나게 넓은 것인데 그렇다고 끝이 없을 수는 없다.

이 우주가 처음 어떻게 생겨 났을까?

이 우주에는 태양계, 별 등 수없이 많은 물체가 있는데 이런 물체가 처음 아주 오래 전에 어떻게 생성이 되었을까?

질량이 결손되면 많은 에너지가 나온다고 한다.

반대로 에너지가 뭉치면 물질이 될 수 있다고 보면 결국 물질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물질인 듯 싶기도 하다.

그런데 두 물체가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이 있는데 이 만유인력으로 인해 물질이 뭉치고 뭉쳤다가 폭발한다고 한다.

이러한 물질들이 뭉치고 터지면서 별도 되고 별 주위를 도는 행성도 되고 이들이 모여 은하도 되는 것 같다.

여하튼 이 세상은 엄청나게 넓고 그 중 우리 인간은 태양계 속에 있는 지구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지구는 속이 불덩어리이고 겉표면(지각)이 식어 땅이란 형태로 있는데 그 위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다.

그래서 지진도 나고 온천도 있고 화산도 폭발한다.

지각의 두께는 약 30킬로미터 정도이고 공기가 있는 대기권은 약 12킬로미터 정도이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땅도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24시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태양 주위에서 24시간 마다 1회씩 자전하는 지구상에 딱 맞게 형성된 몸을 갖고 있으며, 만일 지구를 떠나면 건강하게 살기 어렵다고 보인다.

인간은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자야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인것 같다
그래서 인간이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로 나가면 며칠도 안되어, 중력 기압등이
다르므로 몸에 이상이 생긴다고 한다.

우리가 살고있는 태양계를 보면 그 중심에 태양이 있고 그 주위에 수성, 금성, 지구,
등 행성이 돌고 있다.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로켓으로 약 3일 정도 걸리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화성까지 가는데는 약 6개월 걸린다고 한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거리는 약 3-4광년이라니 그 거리는 정말 엄청나며,
도저히 왕래할수 없는 거리이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왕래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외계생명체가 UFO를 타고 나타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여진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지구에 맞게 몸이 형성되어 있고, 지구를 떠나서는 생존하기가
어렵다고 할수 있다.

다만 지구를 떠나서도 모든 조건을 지구하고 똑같이 맞춰주면 생존은 가능할 것이다.
미국에서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 그 탐사선이 화성표면을 다니면서 화성표면 사진을
보내왔다. 화성표면도 지구와 비슷하다.과연 화성에 나중 인류가 살수 있을는지,,

지구상에서는 먼저 식물이 번성되어 지구상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산소로 바
뀌고 그러면서 동물이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화성대기에는 이산화탄소가 많다는데 먼저 식물이 살도록 하면 이산화탄소가 적어
지고 산소가 많아지게 될것이며 그러면 동물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 지구도 언젠가는 적색 거성이 되는 태양에 흡수된다고 하니 영원이란 없
는것 같다.

지구가 없어지면 우리 인류도 멸종이 된다.

이렇게 대충 생각해보니 나라는 인간도 하찮은 존재이며, 더구나 나이를 생각해 보니 정말 덧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또 생을 살아가야 하고 나쁜 짓도 말아야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20여년 간을 송무에 종사하다 보니 정말 인생이 빨리도 지나갔다. 나이가 50이 넘어서더니 이제 60이 다가 온다.

정말 끔찍하다.

이렇게 인생이 짧은데 뭘 그렇게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또 인생을 살다보면 해서는 안 될 일도 많다.

남한테 피해나 고통을 주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정의를 아닌 불의는 대부분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그래서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인생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대부분 자업자득이다.

오늘날 잘 사는 사람은 대부분 과거에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또 남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그전에 그만큼 베풀었기 때문이다.

복이 없는 사람은 사고나 행동이 복받지 못하게 행동, 사고하는 경우가 많다.

돈을 번 사람은 그만큼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삶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돈을 억지로 벌려고 하면 오히려 화를 입게 된다.

돈은 끝이 없으니 현재의 자신의 상태에서 만족해야 한다.

요즘 주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다.

내 나이 또래들은 하나 둘 직업이 없어진다.

직장생활 하던 사람들은 그 직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갈수록 세상살이가 힘들어진다.

나이 50이 되면 인생의 이치가 대충 보인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물속에서 바깥 세상은 상상도 못하고 헤매는 사람도 있다.

인생의 이치를 빨리 깨우쳐야 한다.

인생의 이치를 환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물속에서 물체를 보듯 희미하게 겨우 앞에 있는것만 겨우 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인부지불온이면 군자호아라 한다.

남이 싫은 소리를 해도 얼굴을 붉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남의 말을 잘 들어 주면 복이 오는 것 같다.

공중업무를 하다보면 가끔 공중을 하느니 어떻게 하느니 하면서 당사자끼리 고성이 있을때도 어찌다 있으나, 이는 아주 드물고 사무실이 송무할 때 보다는 평온하다.

확실히 공중이 분쟁 예방효과는 되리라 본다.

물론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단점도 있다.

다 좋은게 어디 있겠는가?

이집트가 시끄럽다.

1970년대 말이나 1980년대 초 우리나라 같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정부는 도태된다.

정치가 한걸음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문제다.

전혀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북한 정권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이집트 국민처럼 북한 주민들도 언젠가는 일어나지 않을까?

북한이 어떻게든 빨리 정리 되어서 통일이 되면 좋겠다.

북한이 저러고 있어 한반도가 항상 불안하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은 대단한 일이다.

중국 동북지방에도 우리 민족이 많이 살고 있다.
 그 면적도 한반도보다 크고 그 수도 엄청나다.
 그런데 한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많이 들어온다.
 얘기를 들어 보면 대부분 어렵게들 살고 있다고 한다.
 전부 우리와 같은 핏줄이다.
 북한 주민들도 정말 어렵게들 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훨씬 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 민족 모두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3년전 대선때 경제회복을 내세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니 국민 대다수가 경제를 살려 줄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다.
 경제는 잘 돌아가야 한다.
 나라 전체가 경제가 잘 돌아가야 모든 국민들이 신명나게 산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람들 대부분의 표정도 어두워진다.
 민족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
 집안도 가장이 똑똑하지 못하면 온 가족이 고생한다.
 우리나라국민의 민도도 많이 높아 졌다.
 다만 국민의 도덕성도 많이 높아져야 한다.
 정말 서로 잘 났다고 하고 자기 것을 꼭 찾아가려고 기를 쓰는 것, 양보심 없는 것은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

요즘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
 지하철에서 다리를 꼬고 앉은 청소년이 많다.
 공중도덕 수준이 낮다.
 우리가 자식들을 너무 이기적인 인간으로 키우는 것 같다.

인간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데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해 줄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은 공익광고를 통해서라도 계도해야 한다.

학교에서 사회,도덕 과목이 없어진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교육의 기본은 먼저 인격의 기초를 세워줘야한다.

도덕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이제 두서없이 써본 글을 마무리 해야겠다.

정말 생각가는데로 썼다.

예수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라고 했고,

부처님은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라 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사랑하고 아껴주라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일이다.

살아있을 때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겠다.

인생은 나무에 달린 나뭇잎 같다.

가을이 되면 시들어 떨어져 바람결에 날리는...